

욥기

세션 11: 천국의 광경, 파트 2

존 월튼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욥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11, Scene in Heaven, Part 2입니다.

천국의 두 번째 장면 소개 [00:23-1:21]

이제 우리는 천국의 두 번째 장면으로 이동합니다. 욥이 그의 모든 소유물 곧 그의 양과 소와 그의 낙타와 그의 소와 그의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야훼와 도전자 사이에 대화가 있습니다. 2장 5절에 있습니다. 아니, 미안해, 3절. “여호와께서 도전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은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니라” 그가 처음에 했던 것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네가 이유 없이 나를 선동하여 그를 죽이게 하였어도 그는 여전히 그의 충절을 지켰느니라.” 좋아요.

선동하다[1:21-4:31]

이제 그 문구를 조금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어로 “선동하다”라는 이 동사의 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루트 “*sut*”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히브리어가 있는 분들에게는 때때로 원인이 되는 히필 형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가끔 간접 목적어와 함께 나타나기도 하고 없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제는 챌린저입니다. 물론 동사는 “선동하다”입니다. 직접 목적어는 “당신이 나를 부추겼습니다” 야훼이고 간접 목적어는 “그를 대적하여 그를 파멸시키려고” 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고에 관련된 세 당사자, 도전자와 야훼, 그리고 옴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런 종류의 문맥에서 동사를 사용하는 세 곳이 더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사무엘상 26:19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제는 여호와입니다.

대상은 사울입니다. 즉, 다윗은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을 부추겨 나를 대적하게 하셨다면”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David는 간접 목적어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도록 선동한 것은 야훼 또는

그의 분노입니다. 좋아요. 그는 다윗을 선동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합니다

. 따라서 야훼가 주제입니다. 다윗은 직접 목적어이고 이스라엘은 간접

목적어입니다. 예레미야 43 장 3절에서 바룩은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적인

대상인 예레미야를 선동하는 주체입니다. 죄송합니다. Jeremiah는 직접적인

목적어입니다. 이스라엘은 간접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옴기 2장 3절

외에 이 동사를 사용하고 주어와 직접 목적어, 그리고 간접 목적어가 있는 이

설정을 가진 세 곳이 더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살펴보면 사용법과 작동 방식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유도된 행동은 간접 목적어에 대해 항상 부정적입니다. 좋아요? 선동 행위는

본질적으로 최악이나 악한 행위는 아니지만 간접 목적어에 대해서는 항상

부정적이다. 결국, 때때로 야훼는 선동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죄가 있거나 악하지 않습니다. 욥은 직접 목적어로서 도전자가 욥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지만 야훼는 욥에 대한 행동에 책임이 있습니다.

간접목적어로서의 Job은 주어로서의 Challenger의 역할에 대해 알지 못한다. 그는 야훼의 역할만을 이해합니다. 그는 직접 목적어입니다. 도전자는 야훼를 선동하여 다윗을 대적하게 하였다. 미안해, 욥.

까닭 없이[힌남][4:31-6:24]

그래서 1장 9절에서 도전자가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겼느냐고 물었을 때 "아무 이유 없이"라는 단어 힌남이 사용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유 없이 그를 선동했다. 그래서 2:3에서 사용합니다. 그것은 또한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겼는가에 대해 1:9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도전자는 까닭 없이 야훼를 격동시켜 욥을 대적하게 했습니다. 같은 히브리어 *힌남* 입니다 .

이것은 헛된 일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스겔 6:10에서, 또는 사무엘상 25:31에서와 같이 불필요하게 행해진 일, 또는 심지어 보상 없이 행해진 일, 예레미야 29:15에서. 그리고 물론 욥기 1장 9절의 의미는 그것이 보상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유 없이 한 일, 즉

과분한 대우를 말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무엘상 19:5 또는 열왕기상 2:31과 같은 구절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신 장면을 준비했습니다. “당신은 이유 없이 그를 반대하도록 나를 선동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비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챌린저가 선동했지만 본질적으로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옅은 도전자의 역할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에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장면의 차이 [6:24-7:18]

그렇다면 이번 2라운드 결과는? 이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모든 긍정적인 것, 번영을 맛보았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는 네거티브를 추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육체적 고통을 얻습니다. 아이디어는 챌린저가 제시한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글썄요, 모든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누구나 참을 수 있지만, 그들을 고통에 빠뜨리기 시작하면 이제 그것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2라운드는 신체적 고통을 더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상실과 슬픔과 관련된 정신적 괴로움을 가져왔고 두 번째 라운드는 고통과 관련된 신체적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도시 덤프: 추방 및 배척 [7:18-8:18]

욥에게 나타난 피부병은 그를 도시에서 추방하고 떠돌림으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의학적 진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피부병을 그런 식으로 치료했습니다. 배척당하는 이유다. 그래서 그는 도시에서 쫓겨났고 결국 잿더미로 언급된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 쓰레기와 같습니다. 그곳에 버려진 것은 쓰레기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버려지는 것은 똥이다. 욥은 결국 도시 쓰레기장에 앉아 있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낮아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지금까지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쁘게 만드는 것은 단순한 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처한 상황을 설명하기에 충분히 나쁘지 않습니다.

수사적 전략 [8:18-9:19]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천국 장면의 수사적 전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욥이 신실함에 대한 유일한 동기가 유익을 얻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버릴 모든 기회가 있음을 보증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제 그는 손실만 입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고통을 겪고 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의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 알아낼 모든 기회를 갖게 합니다. 고통을 참는 것과 상실을 참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확대되었고 욥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는 아내와 세 친구를 만난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부분에서
그들 각각이 가진 역할과 그들에 대한 그의 반응을 다룰 것입니다.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욕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11,
Scene in Heaven, 파트 2입니다. [9:19]